

# “군민 삶 바뀌는 ‘대동 장성’ 시대 활짝 열 것”

## 병오년 새해설계



김한중장성군수

“2026년 병오년(丙午年) 장성군은 ‘함께 만드

침단3지구 AI·데이터 ‘신산업 거점’

맞춤형 복지·스마트 농업 경쟁력 ↑

고려시멘트 부지 문화 공간 재탄생

는 성장 장성, 함께 여는 행복한 미래’라는 비전 아래 군민의 삶이 피부로 체감되는 실질적인 성장과, 5만 군민이 하나 돼 화합하는 ‘대동(大同) 장성’의 시대를 활짝 열겠습니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8일 신년사를 통해 “지난 한 해 고물가와 고금리, 인구 소멸 위기라는 거센 파도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군민의 일치단결된 힘과 향우들의 뜨거운 애향

심 덕분”이라며 감사의 뜻과 새해 군정 운영의 포부를 밝혔다.

김 군수는 올해 군정의 최우선 가치를 ‘성장’과 ‘화합’에 두고, 장성의 지도를 바꿀 핵심 동력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먼저 ‘성장 장성’을 위한 엔진을 힘차게 가동한다. 대도시 광주와 인접한 침단3지구 일대를 배후 도시를 넘어 이곳을 청년들이 일하고, 즐기고, 가정을 꾸리는 명실상부한 ‘신산업 거점’으로 진화시킨다.

특히 국립심뇌혈관센터 건립과 데이터센터 유치는 장성을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를 책임지는 핵심 요충지로 변모시킬 전망이다. 기업이 먼저 찾아오고 양질의 일자리가 넘쳐나는 경제 도시를 만

들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이다.

군정의 기본인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을 위한 ‘두터운 복지’도 실현한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함께하는 복지’를 위해 어르신 효도권과 병원 동행 서비스를 확대해 노후가 편안한 장성을 만든다.

또한 미래 세대인 청년들을 위한 교육과 주거 지원을 대폭 강화해, 요람에서 무덤까지 군이 책임지는 든든한 울타리를 구축한다.

지속 가능한 미래 설계를 위한 청사진도 제시했다. 장성의 수려한 사계절 자연환경을 관광 자원으로 ‘천만 관광 시대’를 앞당기고, 고령화된 농촌에는 ‘스마트 농업’을 보급해 농업의 경쟁력을 높인다.

지역 속원인 고려시멘트 공장 부지는 주거와 문화, 신산업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거시적인 안목에서 발전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김 군수는 “정치와 행정의 존재 이유는 어제보다 나은 오늘, 아이들이 꿈꿀 수 있는 미래를 만드는 것”이라며 “기존의 관습을 과감히 탈피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더 낮은 자세로 경청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혼자 걸으면 길이지만, 함께 걸으면 역사가 된다”며 “장성의 진정한 주인인 군민 여러분과 함께 손잡고 난관을 돌파해 ‘장성군민’이라는 네 글자가 자부심이 되는 시대를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역설했다. /장성=김문태 기자

## 화순군, 전국 최초 ‘통합돌봄과’ 신설

고령화·돌봄 수요 증가 대응

복지·보건·의료 등 통합 관리

화순군이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통합돌봄과’를 신설하고 복지 행정의 대전환에 나선다.

8일 화순군에 따르면 정부 국정과제인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을 지방정부 차원에서 선도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조직 개편을 단행, 통합돌봄과를 공식 출범했다.

이번 통합돌봄과 신설은 급속한 고령화와 복합적인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그동안 부

서별로 분산 운영되던 복지·보건·의료·돌봄 서비스를 하나의 창구에서 통합적으로 기획·조정·연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설된 조직은 ▲돌봄기획팀 ▲돌봄지원팀 ▲자립돌봄팀 ▲희망복지팀 등 4개 팀으로 구성돼 전문성을 강화했다.

먼저 ‘돌봄기획팀’은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고 제도적 기반을 다진다. ‘돌봄지원팀’은 대상자 발굴부터 개인별 맞춤형 계획 수립, 서비스 연계까지 도맡아 누수 없는 관리를 책임지며, ‘자립돌봄팀’은 장애인의 일상 회복과 자립을, ‘희망복지팀’은 위기가구 발굴과 촘촘한 안전망 구축에 주력한다.

화순군은 이번 조직 신설을 계기로 행정 중심이 아닌 주민 삶 중심의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돌봄 공백 해소는 물론 서비스 중복·누락 문제를 최소화해 돌봄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또한 지역 내 의료기관, 복지시설, 민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지역 특성에 맞는 통합돌봄 모델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양보남 통합돌봄과장은 “통합돌봄과 신설은 돌봄을 단순한 사회적 서비스가 아닌 주민의 존엄한 삶을 지키는 필수 권리로 격상시킨 것”이라며 “화순형 통합돌봄 모델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대한민국 복지 행정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화순=이병철 기자



순천시는 최근 서면에서 노관규 순천시장과 시민들이 모인 가운데 시민과의 대화를 개최했다.

〈순천시 제공〉

## ‘시민이 묻고 시장이 답하다’…순천시 시민과의 대화

23일까지 읍면동 순회

순천시가 오는 23일까지 24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2026 시민과의 대화’를 개최한다.

8일 순천시에 따르면 시민과의 대화는 시정 운영 방향을 시민과 공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소통 행정의 장으로 마련됐다. 시민이 궁금해하는 정책의 방향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지역에서 체감하는 다양한 의견을 직접 들겠다는 취지다.

시민과의 대화에서는 노관규 순천시장이 직접 2026년 시정운영계획을 설명하고, 주요 역점사업과 추진 일정, 기대효과 등을 안내한다. 이어지는 대화 시간에는 시민 건의와 질의에 답변하며, 사안별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생활 불편 사항과 지역 현안, 정책 제안 등 현장에서 접수된 의견 가운데 즉시 조치가 가능한 사안은 신속히 처리하고,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관계 부서와 연계해 후속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접수된 건의사항은 분야별로 분류해 즉시·단기·중장기 과제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처리 결과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안내할 방침이다.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원인을 분석해 제도 개선 과제로 묶어 종합대응을 마련할 계획이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시민과의 대화는 정책을 일반적으로 알리는 자리가 아니라, 시민이 시정의 주체로 참여하는 과정”이라며 “읍·면·동의 특성과 현안을 면밀히 살피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순천=정기 기자

## 고흥군, 13일부터 ‘군민과 지역발전 토론회’

16개 읍·면 순회…특화 전략 논의

고흥군이 민선 8기 소통 행정의 트레이드마크인 ‘군민과의 지역발전 토론회’를 통해 다시 한번 군민 속으로 들어간다.

8일 고흥군에 따르면 오는 13일 동일·봉래면을 시작으로 27일까지 16개 읍·면을 순회하는 ‘2026년 군민과의 지역발전 토론회’를 개최한다.

일정은 ▲13일 동일·봉래 ▲14일 도덕·풍양 ▲20일 도하·포두 ▲21일 두원·고흥 ▲22일 금

산·도양 ▲23일 영남·점암 ▲26일 대서·동강 ▲27일 남양·과역면 순으로 진행된다.

이번 토론회의 핵심은 ‘실행력’으로 지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발굴된 의제 중 인구 증가, 관광 활성화, 지역 경제 회복 등 각 읍·면의 특성에 맞는 중점 과제를 읍·면장이 직접 제시한다.

이어 공영민 군수가 주재하는 토론회를 통해 군민들과 함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심도 있는 대화가 이어진다.

또한 지난 3년간 군민들이 제안했던 건의 사항에 대한 추진 상황도 상세히 보고된다.

군은 그동안 접수된 총 552건의 주민 속원사업 및 발전 과제 중 68%에 달하는 378건을 완료하거나 추진 중에 있어, 이번 보고회가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고흥군 관계자는 “민선 8기 군정 철학인 ‘현장에 답이 있다’는 원칙 아래, 보여주기식 행사가 아닌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토론회에서 나온 지혜를 모아 군정 운영 방향과 읍·면별 맞춤형 발전 전략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주성학 기자



## 광양시, 중마시장서 ‘도로명주소 생활화’ 홍보

광양시가 새해를 맞아 전통시장을 찾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의 편의성과 중요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펼쳤다.

8일 광양시에 따르면 지난 5일 중마시장에서 시민들에게 도로명주소의 올바른 사용법과 확대된 주소 체계를 알리는 현장 홍보를 실시했다. 〈사진〉

이번 캠페인은 기존 건물 중심에서 사물과 공간까지 촘촘하게 확대된 주소 개념을 안내하고, 긴급 상황 시 신속한 위치 파악 등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주소 정보의 가치를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 관계자들은 홍보 물품과 전단지 배부

하며, 정확한 도로명주소 사용이 우편·택배 배송의 정확도를 높이고 생활 편의를 증진시킨다는 점을 적극 알렸다.

광양시는 홍보에 그치지 않고 올해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등 주소정보시설 6종에 대한 대대적인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훼손되거나 노후된 시설을 정비하고, 골목길과 농어촌 등 주소 확인이 어려운 사각지대에 안내 시설을 집중 확충해 시민 불편을 해소할 방침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도로명주소가 시민의 일상과 안전을 지키는 핵심 정보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시설 정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광양=양홍렬 기자

## 곡성군, 임신부 대상 ‘첫걸음 꾸러미’ 지원

곡성군이 저출산 위기 속에서도 3년 연속 출생아 증가라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바탕으로 임신부 지원 정책을 더욱 강화한다.

8일 곡성군에 따르면 올해부터 임신부의 건강한 출산을 돕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신 첫걸음 꾸러미’ 지원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곡성군에 주소를 둔 임신 12주 이상의 임신부다. 보건 의료기관에 임신부로 등록하면 자각 확인 절차를 거쳐 탄산 크림 등 임신 시기에 꼭 필요한 물품이 담긴 알짜배기 꾸러미

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기존의 산후조리비나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에 더해, 임신 초기 단계부터 산모가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곡성군은 이러한 촘촘한 생애주기별 지원 정책에 힘입어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도 ‘아이 울음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실제 출생아 수는 2023년 62명, 2024년 87명에 이어 2025년에는 95명을 기록하며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곡성=김영필 기자



## 담양군, 청년 농업인 소통 간담회 개최

담양군은 “최근 청사 소재원실에서 지역 농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 농업인과 농업사관 학교 졸업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청년 농업인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사진〉

이번 간담회는 청년 농업인이 영농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이를 군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 참석한 청년 농업인들은 영농 초기 정착 과정에서 느낀 현실적인 어려움을 공유하며 ▲농업정책 개선 방안 ▲스마트팜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 제언과 의견을 나눴다.

정철원 담양군수는 “이번에 나는 소중한 의견을 바탕으로 청년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자부심을 느끼는 ‘살맛 나는 부자 농촌’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 기자